

고령자 그룹홈의 운영과 거주자의 생활 실태

A Research on the Management Condition of Group Homes for the Elderly and Their Living Environment

김현진*
Kim, Hyun-Jin

안옥희**
An, Ok-Hee

Abstract

To investigate the actual management condition of group homes for the elderly and their living environment, four group homes and 26 elderly people living in the group home were surveyed. As the result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dministrator and the elderly were acceptable, but the group homes seem suffer from insufficient administrative supports. The most required service in the group homes was a conversational partner service. Moreover, the most satisfactory point for the elderly living in group homes was the settlement of food, clothing, and housing. The unsatisfactory things were the service related to medical, leisure, and house work and an invasion of their private life. The resident elderly in group homes were fully satisfied with their living environment includ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manager and the people in the facility. They, however, do not have much chance to make an exchange with their neighbor. Overall, the elderly want to stay continuously in the group homes where they are living current.

Keywords : Group home of the elderly, Living environment, Management condition

주요어 : 고령자 그룹홈, 생활환경, 운영

I.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고령인구의 증가 현상으로 1970년대부터 고령자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응책, 즉 고령자의 복지정책이 도입되었으나 대부분의 정책이 소득 보장,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것이었고, 주택보장에 관한 것은 무의탁자를 위한 수용보호시설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최근 서구에서는 그동안 주류적 고령자 생활환경이 되어 왔던 시설보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탈 시설화 운동과 지역사회보호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화된 고령자 홈이나 고령자 간호 홈 대신에 독립생활을 돕는 다양한 중간적 지원체계(intermediate supportive system)를 채택하는 추세이다(성명옥, 1999). 이러한 체계는 고령자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행되는 기능적인 무력과 허약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독립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된 것으로 고령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대안적인 수단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머물며 독립성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령자 그룹홈은 종래의 시설 중심에서 탈피하여 이제까지 살아오던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과 지역 내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령자 그룹홈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그룹홈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생활과 그룹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조사대상은 2005년 현재 고령자를 위한 소규모 그룹홈 4곳과 그 곳에서 생활하는 26명의 고령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대상 그룹홈의 수가 4곳으로 한정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룹홈으로 개발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앞으로 지역별로 그룹홈의 수가 많아진다면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주자 생활과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거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조사내용의 구성과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정회원(주저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전공 겸임교수, 생활과학박사
**정회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전공 교수, 학사

위해 2005년 7월에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5년 8월에 본 연구자와 조사원 2명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운영자 설문지의 내용은 운영진반에 관한 현황, 거주자와의 친화와 생활 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거주자 면담지는 일반적인 사항,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생활진반에 관한 사항, 생활만족도, 운영자와 동료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서비스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다중응답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III. 결과 및 분석

1. 고령자 그룹홈의 운영 실태

1) 조사시설 개요

조사대상 그룹홈의 개요는 <표 1>에 나타내었다.

그룹홈의 관리유형은 4개 시설 모두 개인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설립년도에는 1997년부터 2004년에 걸쳐 나타났다. 거주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은 남자 6명(23.1%), 여자 20명(76.9%)으로 여자고령자의 거주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연령은 80대가 14명(5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0대가 10명(38.5%)으로 나타나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각 그룹홈별 거주자 수는 10명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룹홈 하나의 인원은 12명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8명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최정신 외, 2003)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비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거에 대한 의식(김현진 외, 2005)에서는 그룹홈의 적정 거주자 수로 3~5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제공되는 그룹홈에서는 거주자 수를 조금 낮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룹홈의 건물 형태는 4개 시설 모두 운영주체가 개인적으로 매입한 단독주택이었으며, 지역 용도는 일반주거

표 1. 그룹홈 시설 개요

		A그룹홈	B그룹홈	C그룹홈	D그룹홈	
관리유형		개인	개인	개인	개인	
설립년도		2004년	1997년	2000년	1998년	
위치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농업지역	농업지역	
주택구입형태		매입	매입	매입	매입	
주택형태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거주자구성	성별	남자 여자	- 8명	1명 4명	2명 1명	3명 7명
	연령	60대	-	-	-	1명
		70대	3명	3명	1명	3명
		80대	5명	2명	2명	5명
	90대	-	-	-	-	1명
전체		8명	5명	3명	10명	

지역과 농업지역으로 나타났고, 지역적 위치는 대구와 광주, 경상북도에 위치하였다.

2) 고령자 그룹홈의 관리 특성

고령자 그룹홈의 관리 특성은 <표 2>와 같다.

운영자의 업무를 살펴보면, 거주자 관리 업무가 5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행정 업무가 31.3%를 차지하였다. 인력배치 만족도는 '매우 부족하다' 1점, '매우 충분하다' 5점의 평가 척도에서 평균 2.25점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는 생활보호대상의 유무와 부양가족 유무 등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그룹홈 내의 생활규칙은 3개 시설에서는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나머지 1개의 시설에서는 체계적으로 문서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표 2. 고령자 그룹홈의 관리 특성 N=4

변인	구분	N(%)
운영자 업무*	거주자 관리	53(52.5)
	행정	31(31.3)
	자원봉사자 관리	5(5.0)
	후원자 관리	6(6.3)
	시설 관리	5(5.0)
인력배치 만족도	매우 부족하다	-
	부족하다	3(75.0)
	적당하다	1(25.0)
	충분하다	-
	매우 충분하다	-
M(SD)		2.25(.50)
거주자 선정시 우선 기준	생활보호대상유무	2(50.0)
	가족관계	1(25.0)
	경제적 상황	1(25.0)
생활규칙	문서화×, 체계적×	-
	문서화×, 체계적	3(75.0)
	문서화, 체계적×	-
	문서화, 체계적	1(25.0)
거주자의 장애·질병에 대한 대책	문서화×, 체계적×	-
	문서화×, 체계적	4(100.0)
	문서화, 체계적×	-
	문서화, 체계화	-
거주자와의 친화관계	매우 나쁘다	-
	나쁜 편이다	-
	보통이다	-
	가깝다	1(25.0)
	매우 가깝다	3(75.0)
M(SD)		4.75(.50)
생활공간 크기 만족도	매우 협소하다	1(25.0)
	협소하다	-
	적당하다	1(25.0)
	여유롭다	2(50.0)
	매우 여유롭다	-
M(SD)		3.0(1.41)
생활공간관리	거주자 스스로	1(25.0)
	거주자+운영자	3(75.0)
간판부착여부	처음부터 안함	3(75.0)
	처음부터 부착	1(25.0)
부착하지 않은 이유	주민의 인식	3(100.0)

* '운영자 업무' 문항의 경우 각각의 업무를 비율로 표시한 관계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나 생활규칙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었다. 또한 거주자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수행이 어렵게 될 경우 4개 시설 모두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적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일반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으로 거주자를 이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 입장에서 본 거주자와의 관계는 5점 평가에서 평균 4.75점으로 매우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공간 크기 만족도에서는 5점 평가에서 평균 3.0점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룹홈의 생활공간 관리에서 3개 시설은 거주자와 운영자가 함께 관리하는 형태였으며, 1개 시설의 경우는 거주자가 전적으로 생활공간을 관리하였는데, 이는 거주자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현관이나 대문에 그룹홈 시설의 표지 부착은 1개의 시설에서만 처음부터 표지를 부착하였으며, 나머지 3개의 시설은 처음부터 부착하지 않았다. 표지 부착을 처음부터 한 시설의 경우, 운영자가 오래전부터 생활해온 지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나 이웃 주민과의 마찰이 없었으나, 다른 시설의 경우 이웃주민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고령자 그룹홈이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시설주거가 대부분 대규모이며, '수용'의 이미지가 있어 소규모 지역밀착형의 시설인 고령자 그룹홈도 시설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웃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고령자 그룹홈이 지역의 복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3) 고령자 그룹홈의 재정적 특성

고령자 그룹홈의 재정적 특성은 <표 3>에 나타내었다.

그룹홈 매입시 정부나 시의 지원금은 1개의 시설에서만 5천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4개 시설 모두 없었고, 운영자 개인의 보조금 지원은 3개 시설에서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룹홈 매입은 운영주체의 개인자산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룹홈 운영시 보조 지원하는 항목으로는 연료비가 26.7%로 가장 많았고 주택수리비와 부식비가 각각 20%를 차지하였다. 예산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연료비(33.2%)를 들고 있어 현재 예산보조항목이 합리적으로 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료비는 지원이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나 현재의 지원액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운영 예산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평가한 결과, 평균 1.5점으로 매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고령자 그룹홈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특성

고령자 그룹홈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표 4>

표 3. 고령자 그룹홈의 재정적 특성 N=4

변인	구분	N(%)
그룹홈 매입시 정부 또는 시의 지원금	유	1(25.0)
	무	3(75.0)
그룹홈 매입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유	-
	무	4(100.0)
그룹홈 매입시 운영주체의 보조금	유	3(75.0)
	무	1(25.0)
운영시 보조 지원 항목*	연료비(난방비)	4(26.7)
	주택수리비	3(20.0)
	부식비	3(20.0)
	공공요금	2(13.3)
	기타	3(20.0)
가장 필요한 예산지원*	연료비(난방비)	4(33.2)
	주택수리비	2(16.7)
	부식비	2(16.7)
	공공요금	2(16.7)
	인건비	2(16.7)
현재 운영 예산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부족하다	2(50.0)
	부족하다	2(50.0)
	적당하다	-
	충분하다	-
	매우 충분하다	-
M(SD)		1.50(0.58)

표 4. 고령자 그룹홈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특성 N=4

변인	구분	N(%)
자원봉사자 활용정도	매우 부족하다	-
	부족하다	-
	보통이다	1(25.0)
	충분하다	2(50.0)
	매우 충분하다	1(25.0)
M(SD)		4.0(.82)
자원봉사자 부족한 분야	가사보조서비스	2(50.0)
	의료서비스	2(50.0)
지역사회단체의 도움 경험	유	4(100.0)
	무	-
있는 경우, 도움단체*	종교단체	4(36.4)
	학생, 개인	3(27.2)
	주민자치회	2(18.2)
	기타	2(18.2)
타 기관 협조 의뢰	유	3(75.0)
	무	1(25.0)
있는 경우, 협조의뢰기관*	보건소, 병원	4(80.0)
	종교기관	1(20.0)
지역주민의 인식 및 호응도	이해x, 기피한다	-
	이해x, 도움없다	2(50.0)
	이해하며 도움없다	-
	이해하며 도움준다	-
	이해하고 적극 도움	2(50.0)
지역사회자원 활용시 어려움	전문 인력 부족	3(75.0)
	행정기관의 협조부족	1(25.0)

* '지역사회단체'와 '협조의뢰기관' 문항의 경우 복수응답 결과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에 제시하였다.

먼저 자원봉사자의 활용 정도에 대해 5점 평가한 결과, 평균 4.0점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원봉사자가 가장 부족한 분야는 식사준비나 세탁, 청소 등의 가사보

조서비스 분야와 진료나 물리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분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단체의 도움은 4개 시설 모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며, 도움을 받은 지역단체로는 종교단체(36.4%), 학생이나 개인(27.2%), 부녀회, 상조회 등의 주민자치회(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의 인식 및 호응도는 그룹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과 그룹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서 도움이 없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그룹홈에 대한 홍보 부족과 지역주민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지역사회자원 활용시 전문 인력 부족(75.0%)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었다.

또한 그룹홈 운영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타 기관에 협조를 의뢰한 경험은 3개 시설에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뢰한 기관으로는 보건소와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5) 고령자 그룹홈의 서비스

고령자 그룹홈에서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횟수에 대한 사항을 <표 5>에 나타내었다.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복수응답한 결과, 시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말벗, 상담 등의 정서서비스와 진료, 물리치료, 투약, 간병 등의 의료서비스, 가사(급식), 이·미용, 목욕, 세탁, 외출동행 등의 가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말벗서비스, 이·미용서비스, 가사(급식)서비스, 진료서비스, 세탁서비스, 상담서비스는 모든 조사대상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말벗서비스가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시설 모두가 말벗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생각하고

표 5. 고령자 그룹홈의 서비스 특성

변인	구분	N(%)	평균 제공횟수(시설수)
현재 제공 서비스	후원, 결연사업	1(25.0)	년4회(1)
	말벗서비스	4(100.0)	매일(3), 필요시(1)
	외출동행서비스	3(75.0)	필요시(2), 월6회(1)
	물리치료서비스	2(50.0)	주1회(1), 월5회(1)
	이·미용서비스	4(100.0)	월1회(2), 월2회(1), 필요시(1)
	가사(급식)서비스	4(100.0)	매일(3), 평일만(1)
	목욕서비스	2(50.0)	주1회(2)
	간병서비스	2(50.0)	필요시(2)
	투약서비스	2(50.0)	매일(2)
	용돈지원서비스	2(50.0)	월1회(1), 필요시(1)
	진료서비스	4(100.0)	월1회(2), 주2회(1), 필요시(1)
	세탁서비스	4(100.0)	매일(3), 필요시(1)
	장제서비스	2(50.0)	년2회(2)
	자립지원서비스	1(25.0)	필요시(1)
	관리비지원서비스	1(25.0)	월4회(1)
상담서비스	4(100.0)	필요시(2), 월2-3회(2)	
가장 필요한 서비스	말벗서비스	3(75.0)	-
	후원, 결연사업	1(25.0)	-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문항의 경우 복수응답 결과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있어 지금보다 더 자주, 그리고 다양한 상대에 의한 말벗서비스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고령자 그룹홈 운영 전반 특성

고령자 그룹홈 운영의 문제점과 운영의 효과성, 활성화 요인, 그룹홈의 필요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표 6).

그룹홈 운영시 문제점으로는 운영비 부족(23.1%)과 행정기관의 지원 부족(23.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관기관의 연계부족, 자원봉사자 부족, 홍보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룹홈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룹홈 운영시 문제점에서 드러난 요소와 같은 경향을 보여,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 행정적 제도 확립,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룹홈의 운영 효과는 4개 시설 모두 거주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통한 외로움 감소가 가장 큰 효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룹홈은 4개 시설 운영자 모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고령자 그룹홈이 거주고령자의 생활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그룹홈 운영자들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거주하는 고령자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룹홈이 매우 효과적이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표 6. 고령자 그룹홈 운영 전반 특성 N=4

변인	구분	N(%)
그룹홈 운영시 문제점*	운영비 부족	3(23.1)
	행정기관의 지원 부족	3(23.1)
	유관기관의 연계 부족	2(15.4)
	자원봉사자 부족	2(15.4)
	홍보 부족	2(15.4)
	지역주민의 이해 부족	1(7.7)
그룹홈 활성화 방안*	운영비 지원	3(33.3)
	행정적 제도 확립	3(33.3)
	전문 인력의 확보	2(22.2)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	1(11.1)
그룹홈의 효과	외로움 감소	4(100.0)
	주거비 절감 관리비 절감	- -
그룹홈의 필요도	M(SD)	5.0(.00)
거주자 생활의 질 향상 영향 정도	M(SD)	5.0(.00)

* '그룹홈 운영시 문제점'과 '그룹홈 활성화 방안' 문항의 경우 복수응답 결과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2.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생활 실태

1)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7>에 나타내었다. 거주자 성별은 남자 23.1%, 여자 76.9%이며, 평균 연령은 80.4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무학이 57.7%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42.3%로 가장 많았다. 입주전 직업으로는 46.1%가 농·축산업이었으며, 여자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관계로 전업주부도 23.1%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자가 진단한 건강평가는 38.5%가 자리에 누울 정도는

아니지만 만성적인 지병이 있다고 하였으며, 5점 평가 결과 평균 3.35점으로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 진단한 대인관계에서도 5점 평가 결과 평균 3.42점으로 보통 이상의 사교적인 대인관계로

표 7.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 N=26

변인	구분	N(%)
성별	남	6(23.1)
	여	20(76.9)
연령(세)	M(SD)	80.4(5.97)
학력	무학	15(57.7)
	초등교육	7(26.9)
	중등교육	2(7.7)
	대학교육 이상	2(7.7)
종교	무교	10(38.5)
	기독교	11(42.3)
	불교	4(15.4)
	천주교	1(3.8)
은퇴전 직업	농축산업	12(46.1)
	전업주부	6(23.1)
	상업	3(11.5)
	교직	2(7.7)
	기타	3(11.5)
건강 상태	건강이 좋지않아 늘 누워서 지낸다	1(3.8)
	지병으로 자리에 눕는일이 많다	4(15.4)
	자리에 눕지는 않지만 만성적인 지병이 있다	10(38.5)
	특별히 아픈대는 없으나 건강하지 않다	7(26.9)
	건강하다	4(15.4)
	M(SD)	3.35(1.06)
대인 관계	매우 비사교적	2(7.7)
	약간 비사교적	5(19.2)
	보통	5(19.2)
	약간 사교적	8(30.8)
	매우 사교적	6(23.1)
	M(SD)	3.42(1.27)
배우자 유무	유	4(15.4)
	무	22(84.6)
자녀수(명)	M(SD)	2.9(1.74)
현재 소득원	정부생활보조금	16(61.5)
	자녀, 친척의 도움	10(38.5)
입주전 생활수준	매우 힘들	7(26.9)
	약간 힘들	3(11.5)
	보통	8(30.8)
	약간 여유있음	7(26.9)
	매우 여유있음	1(3.8)
	M(SD)	2.69(1.26)
입주전 동거형태	혼자서	12(46.2)
	배우자와 함께	1(3.8)
	기혼자녀와 함께	10(38.5)
	미혼자녀와 함께	3(11.5)
입주이유	형편이 어려워서	9(34.9)
	건강상의 이유로	7(26.9)
	부양자가 없어서	3(11.5)
	가족과의 갈등	3(11.5)
	그룹홈이 좋아서	4(15.4)
거주기간 (년)	M(SD)	1.8(22.2)

나타났다.

거주자의 84.6%는 현재 배우자가 없으며, 자녀수는 평균 2.9명이다. 현재 소득원은 61.5%가 정부생활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38.5%는 자녀나 친척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그룹홈 입주전 생활수준은 5점 평가에서 평균 2.69점으로 약간 어려운 형편이었다.

입주전 동거형태는 혼자서 생활한 경우가 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혼자녀와 함께 생활한 경우가 38.5%이었다. 그룹홈 입주 이유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34.9%), 건강 악화(26.9%), 그룹홈 생활이 좋을 것 같아서(15.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룹홈에 평균 1년 8개월간 거주하고 있었다.

2) 자녀와의 교류 특성

그룹홈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자녀와의 교류 특성은 <표 8>과 같다.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5점 평가 결과, 평균 4.08점으로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별거 만족도 또한 평균 4.08점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와 만나는 횟수는 한 달에 1번(26.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두 달에 1번(23.1%)이 많았다. 자녀와 전화로 통화하는 횟수는 전혀 없는 경우(53.8%)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그룹홈 거주 고령자들의 경우 자녀와의 접촉은 자녀들의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8. 자녀와의 교류 특성 N=26

변인	구분	N(%)
자녀와의 관계	매우 나쁨	1(3.8)
	조금 나쁨	3(11.5)
	보통	4(15.4)
	조금 좋음	3(11.5)
	매우 좋음	15(57.7)
	M(SD)	4.08(1.26)
자녀별거 만족도	매우 불만족	1(3.8)
	조금 불만족	3(11.5)
	보통	2(7.7)
	조금 만족	7(26.9)
	매우 만족	13(50.0)
	M(SD)	4.08(1.20)
자녀와 만나는 횟수	거의 매일	2(7.7)
	일주일에 2~3번	-
	일주일에 1번	-
	한 달에 2번	2(7.7)
	한 달에 1번	7(26.9)
	두 달에 1번	6(23.1)
명절, 기념일마다	5(19.2)	
전혀 없다	4(15.4)	
자녀와 통화하는 횟수	거의 매일	-
	일주일에 2~3번	1(3.8)
	일주일에 1번	3(11.5)
	한 달에 2번	3(11.5)
	한 달에 1번	2(7.7)
	두 달에 1번	-
	명절, 기념일마다	3(11.5)
	전혀 없다	14(53.8)

3) 거주자의 생활 특성

그룹홈 거주 고령자들의 생활 특성을 일상생활(표 9)과 생활 개선 및 선호도(표 10)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룹홈 내에서의 식사는 80.8%가 늘 공동으로 하는데, 이는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일상생활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양세화 외, 2003). 반면, 15.4%는 주말에만 각자 해결하며, 그 이유는 80.0%가 자립생활을 위해서라고 답하였다.

또한 여가시간 활용에 대하여 복수응답한 결과, TV나 라디오 시청, 신문구독이 3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하는 일 없이 그냥 지낸다(29.4%), 담소나누기(15.7%), 가사활동(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하는 일 없이 그냥 지낸다(29.4%)가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서혜정(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하는 일 없이 보낸다(41.3%)가 높게 나타나 같은 경향으로 보여진다. 이는 그룹홈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이므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비용이 발생하는 여가프로그램을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룹홈에 함께 거주하는 동료와 보내는 시간은 평균 9.4시간이며,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성격차이와 상호간의 이해차이로 나타났다. 방별 거주자 수는 평균 2.0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룹홈에서의 생활 개선과 선호 특성을 살펴보면, 그룹홈 거주시 가장 만족하는 점은 의식주 문제의 해결(34.6%)이었으며, 다음으로 외로움의 해소(23.1%), 운영자나 도우미의 친절서비스(19.2%), 인간다운 생활보장(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령자들이 가장 불

표 9. 거주자의 일상생활 특성 N=26

변인	구분	N(%)
식사해결방법	늘 각자가	1(3.8)
	늘 공동으로	21(80.8)
	주말만 각자가	4(15.4)
각자 해결할 경우, 그 이유	자립생활을 위해서	4(80.0)
	음식취향이 달라서	1(20.0)
여가시간 활용방법*	TV/라디오 시청, 신문구독	17(33.4)
	하는 일 없이 보냄, 낮잠	15(29.4)
	담소나누기	8(15.7)
	가사활동(청소, 텃밭가꾸기)	5(9.8)
	외출, 이웃방문	3(5.9)
	종교행사	2(3.9)
	서예 등 취미활동	1(2.0)
동료와 함께 보내는 시간	6시간 미만	8(30.8)
	6~12시간 미만	9(34.6)
	12시간 이상	9(34.6)
	M(SD)	9.4시간(5.29)
동료와의 관계가 나쁜 경우, 그 이유	성격차이	3(75.0)
	상호간의 이해차이	1(25.0)
실별 거주자수 (개인실)	1명	9(34.6)
	2명	8(30.8)
	3명 이상	9(34.6)
	M(SD)	2.0명(.79)

*'여가시간활용방법' 문항의 경우 복수응답 결과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료, 여가, 가사 등의 서비스 미흡과 사생활 침해가 각각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간사용의 어려움(20.0%), 주변환경(15.0%), 동료와의 불화(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자들이 그룹홈에 바라는 점은 여가프로그램의 확충(38.5%), 가족적 분위기 조성(26.9%), 질 좋은 식사 제공(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와 참여하고 싶은 여가프로그램에 대해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지서비스는 말벗서비스(33.3%)를 가장 필요로 하였는데, 이는 전문적인 운영자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에게 말벗서비스 제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차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반면, 예비고령자가 희망하는 그룹홈의 복지서비스 중 말벗서비스는 9.2%만이 희망하여 가장 낮은 희망율을 보였다(김현진 외, 2005).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와 예비고령자와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여가프로그램으로는 마사지와 수지침(40.9%)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는데, 이는 고령자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나 스포츠 활동(22.7%)과

표 10. 생활 개선 및 선호 특성 N=26

변인	구분	N(%)	
거주시 가장 만족하는 점	의식주 문제의 해결	9(34.6)	
	외로움의 해소	6(23.1)	
	운영자나 도우미의 친절서비스	5(19.2)	
	인간다운 생활보장	4(15.4)	
	쾌적한 생활환경	2(7.7)	
거주시 가장 불편한 점	서비스의 미흡	5(25.0)	
	사생활 침해, 외출의 부자유	5(25.0)	
	공간사용의 어려움	4(20.0)	
	주변 환경	3(15.0)	
	동료들과의 불화	2(10.0)	
	관리비 등의 비용 부담	1(5.0)	
그룹홈에 바라는 점	여가프로그램의 확충	10(38.5)	
	가족적인 분위기 조성	7(26.9)	
	질 좋은 식사 제공	3(11.5)	
	시설의 현대화	2(7.7)	
	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	2(7.7)	
	생활비 지원	2(7.7)	
	말벗서비스	14(33.3)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무료진료, 투약서비스	11(26.2)	
	소일거리, 부업	5(11.9)	
	외출동행서비스	4(9.5)	
	가사지원 서비스	4(9.5)	
	용돈, 관리비 지원서비스	3(7.2)	
	목욕서비스	1(2.4)	
	가장 참여하고 싶은 여가프로그램*	마사지, 수지침	9(40.9)
		스포츠활동	4(22.7)
문화활동(바둑, 서예)		3(13.6)	
노래, 고전무용		3(13.6)	
종이공예		3(13.6)	
희망하는 적정 거주자수 (개인실)	1명	13(50.0)	
	2명	8(30.8)	
	3명	5(19.2)	
	M(SD)	1.7명(.79)	

* '복지서비스'와 '여가프로그램' 문항의 경우 복수응답 결과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같이 직접적인 육체활동보다는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마사지나 수지침을 더욱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실별 희망 거주자 수는 평균 1.7명으로 현재 각 실별 거주자 수보다 조금 적은 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현진 외(2005)의 연구에서 예비고령자들은 2인 1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그룹홈 거주자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개인실의 사용에 있어서 두 집단간 선호경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거주자의 생활만족도

그룹홈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만족도를 생활전반, 주거환경, 식생활, 서비스, 운영자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지역주민과의 관계, 개인실 거주자 수로 나누어 '매우 불만족' 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58점으로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균 4.23점, 식생활 만족도는 평균 4.42점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평균 3.92점으로 보통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와의 관계는 평균 4.88점으로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운영자 측면에서 본 거주자와의 친화관계(M=4.75점)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는 평균 3.81점으로 조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주민과의 교류정도는 평균 2.04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교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인실의 거주자 수 만족도는 평균 2.88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현재 실별 거주자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실별 거주자 수의 평균은 2.0명으로 그리 많지는 않으나, 희망 거주자 수(M=1.7명)가 이보다 적고, 현재 거주자 수에 만족하는 정도가 낮은 점등을 고려하면 고령자 그룹홈의 거주자는 개인실을 혼자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그룹홈에서의 정주희망 특성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룹홈에서의 정주희망을 조사한 결과, <표 12>와 같이 5점 평가의 평균 4.46점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룹홈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제외한 여러 생활 측면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11개 문항¹⁾과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주전 생활수준(-.585, p<.01)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 자녀 별 거주만족도(.759, p<.001)에 있어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표 11. 그룹홈에서의 생활 만족도 N=26

변인	구분	N(%)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족	-
	조금 불만족	-
	보통	2(7.7)
	조금 만족	7(26.9)
	매우 만족	17(65.4)
	M(SD)	4.58(.64)
주거환경 만족도	매우 불만족	-
	조금 불만족	1(3.8)
	보통	5(19.2)
	조금 만족	7(26.9)
	매우 만족	13(20.0)
	M(SD)	4.23(.91)
식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족	1(3.8)
	조금 불만족	-
	보통	3(11.5)
	조금 만족	5(19.2)
	매우 만족	17(65.4)
	M(SD)	4.42(.99)
서비스 만족도	매우 불만족	-
	조금 불만족	-
	보통	8(30.8)
	조금 만족	12(46.2)
	매우 만족	6(23.1)
	M(SD)	3.92(.74)
운영자와의 관계	매우 나쁨	-
	조금 나쁨	-
	보통	-
	조금 좋음	3(11.5)
	매우 좋음	23(88.5)
	M(SD)	4.88(.33)
동료와의 관계	매우 나쁨	-
	조금 나쁨	4(15.4)
	보통	4(15.4)
	조금 좋음	11(42.3)
	매우 좋음	7(26.9)
	M(SD)	3.81(1.02)
지역주민과의 교류	전혀 없다	14(53.8)
	거의 없다	4(15.4)
	보통	2(7.7)
	가끔 있다	5(19.2)
	자주 있다	1(3.8)
	M(SD)	2.04(1.34)
개인실의 거주자 수 만족도	매우 불만족	1(3.8)
	조금 불만족	2(7.7)
	보통	22(84.6)
	조금 만족	1(3.8)
	매우 만족	-
	M(SD)	2.88(.52)

표 12. 그룹홈의 정주희망 특성 N=26

변인	구분	N(%)	M(SD)
정주 의사	전혀 없다	1(3.8)	4.46(1.10)
	거의 없다	2(7.7)	
	보통	-	
	조금 있다	4(15.4)	
	매우 많다	19(73.1)	

1) 입주전 생활수준, 자녀별거주만족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이웃주민과의 교류만족도, 운영자와의 관계만족도, 동료와의 관계만족도, 생활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제공서비스 만족도, 식생활만족도, 거주인수 만족도

표 13.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2	3
1. 정주 의사	1	-.585**	.759***
2. 입주전 생활수준	-.585**	1	-.382
3. 자녀별거만족도	.759***	-.382	1

p<.01, *p<.001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즉 입주전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자녀 별거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룹홈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령자 그룹홈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거주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자 고령자를 위한 소규모 그룹홈 4곳과 그 곳에서 생활하는 26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령자 그룹홈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운영자의 업무는 거주자 관리 업무가 가장 많았으며, 인력배치(2.25점)와 운영 예산에 대한 만족도(1.50점)에서 매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운영자 입장에서 본 거주자와의 관계(M=4.75점)는 매우 가깝게 지내며, 생활공간 크기 만족도는 적당하다(M=3.0점)고 생각하였다. 고령자 그룹홈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자원봉사자의 활용 정도가 충분하며(M=4.0점), 지역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종교단체의 도움이 가장 많았다. 그룹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는 부족하였고,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말벗서비스이다.

운영시 문제점은 운영비의 부족과 행정기관의 지원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룹홈 운영시 문제점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지원, 행정적 제도 확립,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운영 효과는 거주자의 외로움 감소가 가장 큰 효과이며, 그룹홈 거주는 거주자의 생활의 질 향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2) 고령자 그룹홈 거주자의 생활 실태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거주자는 여자가 약 8할을 차지하며, 평균 연령은 80.4세이다. 자가 건강상태는 조금 양호하며, 대인관계는 보통 이상의 사교성을 가지고 있다. 입주전 생활수준은 보통 이하이며, 입주전 동거형태는 혼자서 생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입주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

거주자들은 자녀와의 관계는 만족하며, 자녀와 만나는 횟수는 한 달에 1번, 자녀와 통화하는 횟수는 전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식사는 대부분 공동으로 이루어지며, 여가시간에는 TV 시청을 가장 많이 하였다. 또한 방별 거주자 수는 평균

2.0명이며, 희망 거주자 수는 평균 1.7명으로 각 실별 거주자 수보다 조금 적은 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들은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가장 만족하였으며, 서비스의 미흡과 사생활 침해를 가장 우려하였다. 또한 여가프로그램의 확충을 희망하고 말벗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였으며, 마사지와 수지침을 여가프로그램으로 희망하였다.

생활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운영자 및 동료와의 관계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주민과의 교류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룹홈에서 정주 희망은 매우 높았다. 즉 고령자 그룹홈은 고령자의 생활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앞으로 고령자 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측면에서는 전문 인력 및 운영비 지원, 행정적 제도 확립,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거주자 생활 측면에서는 활용 가능한 여가프로그램의 확충과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고령자가 그룹홈 거주를 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자면 고령자 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요구된다. 행정·제도적인 면에서는 자립형 고령자 그룹홈을 새로운 주택 개발의 하나로 인식하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금융과 조세에 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자에게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함으로써 자립형 고령자 그룹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자 다른 요구를 가진 고령자들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자들이 그룹홈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지역사회 내의 근린시설과 복지서비스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원서비스나 여가프로그램 등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녀와의 동거가 감소되는 현황에서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주민의 선입견 및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자립형 고령자 그룹홈의 취지와 운영 장점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규모 그룹홈 형태를 취하고 있는 미인가 복지시설들도 복지시설영역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김숙연(2002), 노인의 집 생활실태와 만족도,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현진·장혜정·안옥희(2005), 중년층이 선호하는 고령자 주거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동계학술대회논문집, pp. 109-110.
3. 서혜정(2002), Group Home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선호도 및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4. 성명옥(1999), 노인의 집 거주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가을호, 한국노인복지학회, pp. 53-54.
5. 손창숙(2001), 노인의 집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양세화·박희진·오찬옥(2003), 노인시설주거의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요구. 한국주거학회지, 14(3), pp. 67-76.
7. 최정신·김대년·권오정(2003), 유료 치매노인 그룹홈의 개발과 관련 정책. 서울: 집문당.
8. 佐佐木伸子(2004), 高齢期グループリビングの公的供給に関する研究, 京都市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接受: 2006. 5. 2)